

시하라는 心事를 가지겠느냐? 아이 그것보다 이것을 보내 고쳐 할 때 나의 생각만 바가 안이다만 일침하 개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의出發이 최은 것으로서 발수박개업다.

勿論 여러의분特殊한使命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나로서는 말하기에 너무餘裕가 없다. 다음에 또機會가 있으면 고생과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로하여금 압해서도 말

(詩) 님 생 각

고요히집현방에 蠶絲際은어인일도
님그림사는다 덕욕설개대하는다
아마도 이내青春은 념업시면못살것되

동양해菊花심어 념파함예보자드니
菊花은滿開하나 념의어안이오다
알들한 념의마음은 그도나를생각하리
西으로가든달님 너게한말부라하자

하엇지마는 말하게하는때문이다. 나로하여금 말하게 하는現實이 더구나 佛敎를背棄한여러분의속에서 더욱鮮明하게 보이집으로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말하기에 가장조흔對象이됨으로되다. 다른이들의게는 自己抛棄——無我라는말이 얼마나 어려운말인가를 내 아는때문이다.

여러분自重을 必면치
己巳 三、十七日 東京豐川町에서

봄 빛

먼곳에게시움은 우리님보거들방
그리는 외로운사랑 안부러라일너주게
(三、十五、竹林精舍에서)

심
여섯밤을잠을취의
담신을보았시오
말업는우사의는

연월간그루
시내물흐르니
조그만바우어
나란이마조안커
에스일을속삭일때

消息

本會臨時總會

진년二月十日午前十時에 本會臨時總會를 市外下目 黑三三八 李智英氏方에서開하고 議長吳官守氏의司會 下에 總會를進行한바 이번臨時總會에서討論한要件은 今春京城에서開催한 全朝鮮僧侶大會에關한것이며 議論이紛々하다가 結局委員을選定하여討論하는 意見이多數임으로 左의五委員을選舉한後 同十二時에無事 閉會하였다더라

委員 李智英 卞善乳 丁鳳允 徐元出 吳官守

本會卒業生送別會

去二月十日午後二時에 本會에서年中行事인 卒業生 送別會를 市外下目黑三三八 李智英氏方에서開하고

無情한錢소래의
貴한송개여주네
그리운당신일곱
월경 노영모님께

(四月八日)

吳官守氏의意味深藏한閉會辭와 崔英煥氏의祝賀辭를비 롯하여 今春卒業生인 李智英 卞善乳 姜在鎬 諸氏 의榮譽의積功으로 果를보게된그동안의 논를게은歷史 談과 金再榮 丁鳳允 朴昌斗 諸氏의朝鮮佛敎를爲하 야한것에일해달나는 피석전祝賀談은 場内の空氣를세 량게하며 滿座會員의가슴에구름씨를뿌려주는同時에 攝影과和氣津々한 茶葉會로외當日의式을맛쳤다는대 今年卒業生の氏名及學校別은如左하다더라

李智英 東京醫學專門學校
卞善乳 東京高等佛敎學校倫理敎育科
姜在鎬 東京高等佛敎學校地理歷史科